금주의 법구-〈법구경〉
불행한 운명은 입에서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3호 2017년 9월 6일 수요일

'계층'서 '지역'으로 불교복지 확장된다

[진단] 변화된 불교 복지 Trend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계 복지관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계층 복지를 넘어 지역 · 문화복지로의 복지 수요의 변화가 감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불교계 복지관의 지역 복지 아젠다 공유 및 연대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 봉은사 주지)은 8월 29일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정식 개관했다.

2013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99억 원이 투입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661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지만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콘서트홀이, 1층에는 스크린 골프장 시설이 건립됐다. 수영, 탁구, 골프, 필라테스 등 유료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모두 개관 전 공청회의 복지 수요 조사를 통해 개설한 프로그램들이다.

안정만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설계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로 인해 당초 계획에 없던 수영장이 도입됐다. 판교지역 몇군데 수영장이 있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개관 초기 어르신들 위주로 운영되지만 지역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8월 25일 증축 개관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와 같이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해 증축을 진행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1,812㎡ 대지에 5개 층으로 북카페와 테라피실, 목욕탕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하의 공연장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의 공연도 진행되지만, 지역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지관을 찾아온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의 전통장 담그는 기술 등을 전수하는 교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어르신 복지는 단순히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어르신 복지"라며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맞춰 복지관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선별적으로 복지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주민 · 마을 복지 등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나눠 복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장애인은 어느 범주에 속해야 하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복지관의 역할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 등 연관 계층도 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老복지관서 지역·문화로
골프장 · 공연장 등 개방

보편적 복지 확대 변화
영세한 불교복지관 연대
"복합적 수요 반영해야"

이어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불교계 복지관들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접 불교계 복지관이 연계해 계층을 넘어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시설장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논의는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건립과정에서 수영장을 도입, 빠른 시간 내 불사를 이뤄낸 미국 리빙인리치먼트 센터 교회 경우를 보아도 지역요구를 파악, 반영하는 것은 원동력 확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불교복지 발전을 위한 권역별 논의기구를 보다 강화하고 요구를 파악 반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복지 새 장 여는 힘찬 출발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은 8월 29일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내 노인복지관중 최대 규모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보유해 개관 당일 하루 2500명이 이용 등록을 할 만큼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 아홉 번째)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개관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이다.

템플스테이, 올림픽 홍보 위해 '뉴욕 상륙'

하반기 2018 동계올림픽 다양한 홍보 사업 전개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 올림픽'으로서 성공 유치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팔을 걷어 붙였다. 한국전통 및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1번지 뉴욕에도 직접 찾아가는 것.

불교문화사업단은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다양한 홍보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24~29일 뉴욕에서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행사를 연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여행과 음식을 각각 슬로건으로 내걸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이번 행사는 크게 4가지 △뉴욕 템플스테이 위크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전시 · 체험 △사찰음식 만찬 △사찰음식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뉴욕 템플스테이 위크'는 뉴욕일대 사찰 5곳(원각사 · 불광선원 · 조계사 · 원적사 · 보리사)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또한 24~28일 아스토센터 갤러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전시 · 체험' 행사는 한지 부채 만들기 · 연꽃지화 만들기 · 스님과 차담 · 사찰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특히 26~28일에는 현지 언론 및 미디어 관계자, 문화 · 조리계 관계자, 주 뉴욕 한국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펼친다. 만찬 메뉴는 청정자연 강원도에서 재배된 식재료를 활용, 감자옹심이죽 · 배냉면 · 메밀전병 · 잣더덕생채 · 인삼말이 등 사찰음식으로 구성돼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의 식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욕 사찰 5곳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시 · 강의 · 만찬도

아울러 불교문화사업단은 강원 지역 사찰 5곳(낙산사 · 백담사 · 삼화사 · 신흥사 · 월정사)을 평창동계올림픽 맞이 외국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운영한다. 각 사찰에는 외국어 가능 실무자가 1인 이상 배치되며, 이곳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100여명의 발대식을 9월 중 갖는다.

또한 각 사찰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관광코스 개발에도 나선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지역관광 체험이 포함된 코스 개발을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가이드북 및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 등은 논의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앞서 불교문화사업단은 평창올림픽 대비 사찰음식 홍보의 일환으로 8월 29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IOC조정위원회 오찬을 사찰음식으로 마련했다. 오는 10월에는 패럴림픽 선수단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2017 주요 사업현황으로 템플스테이 및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외국인 참가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템플스테이 외국인 참가자는 40,261명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으며, 인사동에 소재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외국인 참가자는 595명으로 전년대비 480명, 417% 증가했다. 이에 반해 내국인은 템플스테이 참가 5.7%,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13%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총무원-연석회의 '대화 場' 열리나

종단현안대화위원회 9월 6일 기자회견 개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이를 규탄하는 종단개혁 연석회의-적폐청산 시민연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가 대화 테이블 마련에 나선다.

백년대계본부는 제2차 사부대중공사서 종단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양측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8월 31일 회의를 거쳐 '종단현안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년대계본부는 9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종단현안 대화위원회의 기자회견 준비에 착수, 중도성향을 가진 출재가자를 위원에 위촉키로 했다.

앞서 25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열린 제2차 사부대중공사에서는 대중공사 위원부터 참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마곡사, 용주사 문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싸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 참회하고, 세속에 부끄럽지 않은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숙 위원은 명진 스님 제적 논란과 관련해 양측 2박3일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중공사 추진위는 백년대계본부에 위임해 총무원 집행부와 종단개혁 연석회의,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에 대화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중도성향을 가진 출재가자를 위원으로 섭외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종단개혁 연석회의는 30일 기자회견서 "대화채널에 신뢰가 없다"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현재 단식 중인 명진 스님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단 전제조건으로 '적광 사미 폭행사건 진실규명'을 내세웠다.

명진 스님은 "총무원과 대화를 하려면 진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형식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적광 스님 폭행 때문에 이 자리서 나부터 참회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사건 경위를 거짓 없이 먼저 밝힌다면 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